

연구소 소식

육아정책연구소 제6대 박상희(朴相姬) 소장 취임식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월 3일(수) 오전 11시에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제6대 박상희 소장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하였다. 박상희 신임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인류의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에 놓여있는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인간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통하여 교육과 보육의 목표를 재설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미래인구의 새로운 삶의 방향에 대한 통찰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육아정책연구소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적 양극화와 연결감의 부재가 가져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양육환경을 위해 가족을 지원하고 기관을 조력하는 육아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학회 연구자들과 교육·보육 현장의 교직원들께도 “미래세대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지속가능한 연구와 정책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고 하였다.



수도권집중과 저출산대책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육아정책연구소 공동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1년 2월 2일(화) 오후 2시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 주최로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수도권집중과 저출산대책」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국토계획과 저출산’을 주제로 기초강연을 하였다.

주제발표로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의 ‘수도권 인구 및 산업의 구조적 변화 저출산고령화 대책’,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농어촌 육아정책 해법’이 발제되었다.

종합토론에는 김찬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부회장이진행을 맡았으며,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김수진 LH 신혼희망타운사업부 부장, 송요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 조성철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주한덴마크대사관, 저출산 극복, 유아교육·보육 정책 동향 교류 국제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는 2021년 3월 5일(금), 서울 중구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주한덴마크대사관(대사 Einar Jensen)과 저출산 극복 및 유아교육·보육 정책 동향 교류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Danish Fertility Issues and ECEC policy’를 주제로 덴마크대사관에서 Health Counselor로 근무하는 Dr. Nina Monrad Boel가 발표자로 참여했고, 연구소에서는 문무경 국제교류데이터실장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새로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앞으로의 육아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토론에서는 이정립 영유아가족연구실장을 비롯하여 원내 참석자들은 저출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국의 산후조리 및 의료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보육 기관 운영 등에 대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졌다.



육아정책연구소·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간담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 김은설 기획조정본부장은 2021년 3월 11일(목),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김현익 회장, 김은숙 부회장, 채은화 부회장, 서영미 호남충청권역 대표, 백소영 총무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에서는 영유아 교육 보육 정책 현안, 부모교육 및 가족지원 정보 공유의 중요성, 협력네트워크 조직 제안, 향후 지속적인 협력 도모 필요성을 등을 논의하였다.

